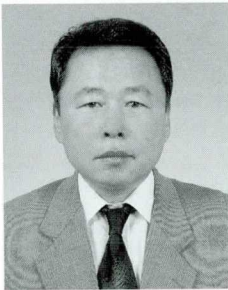




장마유감 (有感)



사)한국오리협회 고문

장 규 호

지루했던 장마에 이은 무더위도,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며칠 사이에 기온이 많이 떨어져 이제는 제법 저녁으론 홀이불을 안 덮고는 잠이 들기가 힘이 든다.

아무리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 한다는 權不十年(권 불십년) 이란 말도 있지 않던가?

매년 우리나라는 장마와 곁들여 태풍 피해를 겪는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의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쨌든 이번 여름에 피해를 입은 많은 오리 사육농가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보내는 바이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은 오리 물량이 자연의 힘(?)으로 조절 되어 체화 될 뻔 했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 온 것이다.

며칠전 부화분과위원회가 협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에는 꼭 참석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미리 회의 일시를 연락 받고 갔었다. 거기에서 느낀 소감을 피력 하자면 이렇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와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 또 나와 이해관계가 틀린 사람들, 그리고 일견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본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나만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共生(공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집행부의 회의 진행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회의 진도도 안 나감은 물론, 참석자들의 짜증을 부채질 한 격이



되었으니까 말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앞으로 철저히 분석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들어 쿼터제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 말은 적정생산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통제를 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그런데 아주 좋게 들리던 이 말이 어쩌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되돌아보면 오리업계의 각 분야마다 철저한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선 업계가 안정을 찾는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 법이다.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업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발상 자체가 자본주의 사상 하고는 거리가 있는데다가,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생각 해 볼 문제이다. 먼저 회의에서 여담으로 오리 소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냉동물량이 소진되어 소위 "맛 간 오리"가 없어 소비자들이 선호했기 때문에 라는 의견이 대세였지만, 나는 이런 의견을 내 놓는다.

A,I 발생 이후 농림부 등에서 하는 광고에 꼭 등장하는 것이 오리이다. 먼저도 이야기 했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탄 게 언제 있었던가?

그리고 오리 업계의 신제품 개발 경쟁이다. 각종 기능성 오리가 주도하는 오리육 판매 시장은 소비자가 안 찾을래야 안 찾을 수 없는 매력 있는 육류이다. 그것은 1인당 육류 소비량의 변화를 보면 오리고기와 가장 비슷한 닭의 경우보다 월등한 성장율을 보인 데서 웅변해 주고 있다.

이런데서 단체의 필요성은 막중해지는 것이다. 회원이라면 자기 발전은 물론이고 업계 발전을 위해서도 성금을 쾌척하는 등, 지금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아직도 협회에선 가야 할 길이 멀다. 자조금제의 도입 등 일이 산재해 있는데, 회비조차 많네, 적네 하는 이런 실정이니 한숨만 나오는 것을 어찌 하랴.

물론 회비를 내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회비를 내는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 할 줄 아는 집행부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도 易地思之(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한참 전에 서울 강남이 개발되어 狔富(줄부)가 많이 생겼다. 그 때 그들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분분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오리업계에서 만들어 진다면 두고두고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塞翁之馬(새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다시한번 생각나게 해 주는 대목이다.